로컬플러스

정읍소방서, 축사화재 주의 당부

지난 8일 오후 3시반 경 정읍시 고부면에 위치한 돈사에서 화재로 인하여 돼지 5천여 마리 등 1억 8천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정읍소방서(서장 김일선)는 장비 20대, 인원 41명을 동원하여 2시간 만에 진화작업을 완료되었다. 이날은 강한 바람이 동반되어 인접 동에 빠르게 연소가 확대 되었고 4개동이 전소하였다.

최근 5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계절별 축사화재 비중을 분석한 결과, 총 276건의 화재 중 겨울이 101건(36.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봄 80건(29.0%), 가을 49건(17.8%), 여름 46건(16.7%) 순이었다. 특히 날씨가 추워지며 난방용 전기사용 등 화재 위험성이 높은 인화물질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소방서에서는 축사시설 안점점검 매뉴얼 배부 및 점검 등 매년 화재예방대책을 세워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또한 축사시설에서 소화시설 비치, 용접작업 등 화기취급 작업 시 안전수칙 준수, 축사시설 내 분진 발생을 억제할 수 있도록 충분한 환기 등 관계자의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경찰서, 피해자 보호 자문변호사 위촉식 가져

부안경찰서(서장 강현신)가 권력형 토착비리, 계약·납품 등 거래관계 부정부패, 직장단체 내 직권 이용 부조리, 블랙컨슈머의 금품갈취로 인해 갑질 횡포의 피해자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이를 위해 부안서는 지난 7일 강현신 서장을 비롯하여 과장, 수사과 각 팀장, 변호사 최영호(법무법인 모악 부안사무소) 등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속칭 갑질 횡포) 피해자 보호 자문변호사 위촉식을 가졌다.

특히 부안서는 지난 9월부터 오는 12월 9일까지 100일 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펼쳐 권력형 토착비리, 계약·납품 등 거래관계 부정부패, 직장단체 내 직권 이용 부조리, 블랙컨슈머의 금품갈취 등 각 분야의 부조리(갑질 횡포)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사팀장과 피해자 보호 자문변호사는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하려고 수사과정 입회 및 조정, 권리구제 방안에 대한 전문상담 등 양질의 법률지원을 지원한다. /부안=이옥수 기자

정읍시의회 임시회 폐회

정읍시의회(의장 유진섭)는 10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1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14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10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배정자 의원의 "경로당 기능 강화 및 미등록 경로당 지원으로 어르신들에게 풍요로운 삶을!"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이 있은 후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의결을 하였으며, 하반기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에 따른 결과보고를 각 상임위원장들로부터 보고받은 후 보고서 채택에 따른 의결을 하였다.

각종 조례안 및 동의안의 안건 처리에 있어서는 총 6건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총 3건중 "정읍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 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은 원안가결 하였고 "정읍시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건은 수정가결 하였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으로는 총 3건으로 "정읍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2건은 원안가결 하였고 "정읍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1건은 수정가결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순조'

정읍시, 사업비 90억원 투입 샘골다리에서 상평동 용흥마을까지 터널 개설

정읍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시는 "오랜 기간 주민 숙원이었던 작은말고개 개설공사와 죽림터널 개설공사 등 각종 굵직한 대형사업들이 2017년 완공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먼저, 작은말고개 개설공사는 총사업비 60억원을 투입해 상동 (구)상동회관에서 구룡동 영창아파트까지 연장 878m, 폭 20m(4차선) 규모로 추진하는 공사이다.

올해 1차분(200m) 공사는 오는 17일 준공예정으로, 2017년 10월 완전 마무리 될 예정이다.

시는 "전면 개통될 경우 동초등학교 사거리로 밀집되는 교통량을 분산시킴으로써 상습교통체증 해소는 물론 시민들의 시간적 편익 증진 물론 경제적 비용을 더는데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총사업비 90억원이 투입되는 죽림터널 개설공사는 샘골다리에서 상평동 용흥마을을 잇는 공사이다. 연장 540m, 폭 12m(2차선)로 개설 중으로 현재 터널굴진을 위한 갱구확보 작업을 추진 중에 있다.

시는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터널작업을 완료하고 2017년 10월까지 접속도로 공사가 완료돼 전면 개통되면 시내권과 정읍생활체육공원과의 접근성이 좋아져 시민들의 체육 과 여가활동 기회가 늘어남은 물론 상평동 주민들의 시내권 소통이 원활해 질 것으로 기대했다.

또 첨단산업단지 연결도로 개설공사는 전북과학대학교에서 국도1호선 신월교차로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 90억원이 투입되며 연장 1천400m, 폭 20m(4차선)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다. 실시설계를 마쳤고 올해 중 원가심사와 분할측량 및 감정평가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여 2017년 부터 2018년까지 공사를 추진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들 사업과 함께 소방도로 개설에도 힘쓰고 있다"며 "초산동 수궁회관 뒤 소방도로와 시기동 신흥정미소 뒤 소방도로가 지난 9월 개설되어 소방차 진입이 원활해짐으로써 화재발생 시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해경, 가을철 '음주운항' 특별단속 실시

사고발생 다발 해역 위주

가을 성어기를 맞아 부안 해경서(서장 조성철)이 10일 조업 선박이 늘면서 선박운항 자의 음주운항 위험성이 한층 높아짐에 따라 이달 말까지 음주운항 특별 단속을 벌인다.

이를 위해 부안 해경은 생활습관형 음주운항 어선과 낚시 어선, 유람선 등 다중이용선박과 수상 레저기구, 화물선 등 음주운항이 의심 되는 지그재그 운항 선박 등에 집중 단속을 펼친다. 특히 해경 센터에서 출입 항 선박 등 취약 항 포구를 중심으로 선박운항 자의 음주측정을 강화하고 해양사고 발생 다발 해역의 운항선박에 대한 음주측정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해경에 따르면 최근 대 어민 교육과 현장 홍보활동과 강력한 단속에도 매년 음주운항 선박이 줄어들지 않아 올 해도 1건의 음주운항이 적발돼 음주운항으로 인한 해양사고 개연성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개정된 해사안전법에 따라 음주운항 단속기준이 혈중알콜농도 0.08%에서 0.05%('11년 12월 6일), 또 0.03%('14년 11월 19일)로 대폭 강화된 것도 음주운항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이유로 꼽았다.

조성철 부안해경서장은 "음주운항 단속기준 혈중알콜농도가 0.03% 강화돼 선상에서 술 한 두 잔을 마셔도 단속기준을 초과할 수 있기 때문에 음주 후 선박을 운항하는 행위는 절대 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누수 없는 군정현안추진 강력 주문

김종규 부안군수, 간부회의서 밝혀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와 부안 정명 600주년, 새만금 사업, 인구증가정책, 친절도 향상 등 군정현안에 대한 창의성 있는 대책 마련을 민선 6기 후반 성공적인 부안 군정 운영을 위한 군정현안의 누수 없는 추진을 김종규 군수가 10일 간부회의에서 주문했다.

김종규 군수는 "요즘은 사회 전반에서 인문학과 스토리텔링을 통한 감성 마케팅이 대세"라며 "모든 업무에 인문학을 접목시키는 방안과 함께 읍면별 스토리텔링을 취합·발전시켜 부안군의 경쟁력을 높이고 더 많은 국가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특히 김 군수는 "부안 정명 600주년 세부실행계획을 창의적으로 마련하고 각 실과 소별로 홍보 및 참여방안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김 군수는 또 "새만금 사업은 특정사안에 매몰되지 않고 종합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며 "새만금 내부개발을 앞당길 수 있는 방법과 부안군 인근 관광 레저용지 개발의 획기적 아이디어, 2023 세계잼버리 부안 새만금 유치 및 성공 개최 방안 등 폭넓게 바라보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군수는 "부안을 찾은 관광객들이 느끼는 가장 첫 부안의 이미지는 바로 친절도"라며 "그러나 아직도 관광개발 정책과 이용고객 친절도 등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한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김 군수는 "인구증가 정책은 매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만큼 다양한 시책 발굴을 통해 적극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김제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추진

재선충병 발생지 및 주요 도시공원 등 대상으로

김제시는 만경읍에서 발생된 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하여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제시는 10월부터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9,500만원의 예산으로 재선충병 발생지 주변과 보존가치가 큰 도시공원, 관내 가로수 및 교통섬 등 약60ha에 예방나무주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소나무재선충을 옮기는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의 서식처를 없애기 위하여 고사목을 제거하고 전량 파쇄 및 소각처리 할 계획이다.

김제시는 지난3월 재선충병이 처음 발생함에 따라 긴급 예비비를 편성하여 63백만원으로 감염목 주변 반경 20~30m에 대한 소구역모두베기를 하였고, 약30ha에 예방나무주사를 실시하는 등 긴급방제작업에 나섰다.

또한 매개충이 성충이 되는 시기인 4월 ~ 9월에 농업용 무인항공헬기, 광역살포기, 연막방제기, 방제차량 등의 다양한 방제방법으로 총611ha의 산림에 집중 방제작업을 실시했다.

소나무재선충병 예찰방제단을 확대하여 감염이 의심되는 소나무류 627본의 시료를 채취하여 검경의뢰하였으며, 김제시 일원 20개소에 전자예찰함을 설치하여 지속적인 예찰활동을 벌이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영세상인회, 성금 기탁

김제시영세상인회(회장 김영길)에서는 10일 김제시청을 방문하여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용해 달라며 이웃돕기 성금 336만2,000원을 지정기탁 하였다. 이 성금은 영세상인 28명이 제18회 김제지평선축제 기간(5일간)에 영업한 수익금 일부와 모금을 통해 마련한 기금으로 관내 독거노인 및 복지소외계층 가정에 소중히 지원할 예정이다. 김영길 김제시영세상인회 회장은 "지역 내에서 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수익금의 일부를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을 위해 환원할 수 있어서 기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봉사와 나눔 활동을 실천해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김제시영세상인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